

민선8기 전북도정 기업유치 추진 상황

수소 등 미래성장산업 기업들, 전북으로 속속 이전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은 전북 경제의 부흥을 이끈다는 포부를 제우선과제로 삼고 기업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제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과 기업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를 주고 오늘 당장 힘들더라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신호를 인격주했다는 것이 도정 목표인 셈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기업유치 추진 상황과 향후 전략 등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전북도는 민선 8기가 들어선 지난 7월부터 12월말 현재 31개 기업이 모두 1조원 가량의 금액을 전북도에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이끌어 냈다.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투자예정 금액이 1조8,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절반의 기간인 지난 하반기에만 1조원 투자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에서 기업유치를 강조하고 있는 효과로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인 5개의 대기업 유치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물꼬가 터졌다.

스마트 기기부터 반도체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전자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선두 기업인 (주)두산이 김제 지원산업단지에서 600여억원을 투자해 휴대폰에 사용되는 인쇄회로용 기관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의 생산 공장을 김제에 짓겠다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주)두산은 여유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기업활동의 추이에 따라 공

지난 하반기 31개사 유치... 1조원 가량 전북 투자 기업유치추진단·기업애로해소지원단 등 신설 전략산업별 가치사슬 체계 구축 타깃기업 선정 중

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주)두산과 같은 기존 도내 진출대기업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기업을 유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전북경제부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전북의 장점인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이차전지, 농생명, 탄소, 수소 등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의 유치를 핵심으로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는 완성차 중심의 대기업이 도내에

소재해 있는 만큼 미래차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공격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도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전념하고 있기에 미래성장산업의 기업들이 속속 전북으로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31개사 기업을 유치해 1조원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며 2,280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이차전지 분야 기업은 작년 한 해 유치한 전체 10개 기업 중 하반기에만 8개사를 집중 유치했다. 올해 들어서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전해질 염(LFP)을 양산해 공급망 안정, 제품 국산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 이차전지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주)프로그래테크와 협약을 이끌어내고 군산제2국가산업단지 950억원을 투입해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또한 올해 전북도가 첫 기업유치 스타트를 끊은 기업인 플라스틱음니엠코리아뉴에너지(주)는 수소차 전용부품을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이다. 플라스틱음니엠코리아뉴에너지(주)(이하 플라스틱음니엠)는 오는 2025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차 8블록내 1만8,031㎡에 수소 연료 탱크 제조 설비를 위해 53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전북도가 주력산업으로 미래차를 육성하려는 계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가 기존에 실시했던 기업유치 관련 용역과 민선 8기 전략산업과 연계성 등을 분석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 가치사슬 보완을 위한 중견기업도 반영해 타깃기업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도민의 명령 받들겠다"며 "세일즈 도지사"를 자칭하고 취임한 김관영 지사는 기업유치에 대해 "반드시 민생을 제치고 달려가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신뢰와 정

성이 필요할뿐 아니라 1개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 관계자를 적어도 10번 이상은 만나야 한다"며 "전북에 가면 기업인이 환영받고 기업하기 편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지론을 펴고 있는 김지사의 기업유치 행보가 그래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도지사의 기업유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됐다.

김 지사를 필두로 한 기업유치추진단이 기업유치 업무를 총괄하며 전북에 기업들을 끌어모으면 기업유치 애로해소지원단은 유치된 기업의 원활한 투자이행은 물론 산업 개발계획 변경, 건축 및 공장 인허가 등 원스톱(One-Stop) 행정으로 지원사격을 하게 된다.

전라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지원시스템"은 기업의 전담공무원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내겠다.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해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시설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신학관 카풀링 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펼치며 기업과 구직자간의 취업 연계 사업, 노사화합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과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대학과 교육청, 도가 참여하는 상설기공인 교육협력추진단을 발족해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공극적으로 전북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동도 걸아졌다.

김관영 지사는 "타 지자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유치가 결코 쉽지 않은 현안이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도의 다양한 특출한 지원정책이 만나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함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도정의 완성도를 차근차근 높여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더 나은 내일 이끈다'

전북도 정책 자문기구 '미래기획단' 출범식

민선8기 전북도의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실현을 향한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단'이 합창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도정자문단 중 변화의 도정을 이끌어갈 '미래기획단' 홍경준 단장 등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기획단은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경제, 언론계, 문화 시민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분야별 도정 주요 역점시책 및 현안에 대해 정책 자문을 비롯해 새로운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민선8기 도정을 뒷받침한다.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열린다. △문화관광 △농생명바이오 △새만금 △미래산업 △산후리 △숙원/혁신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보다 참신하고 치밀한 전북 미래전략 기획 분야의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방향'과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계획' 등에 대해 자문위원 전북연구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전북도는 미래기획단을 시작으로 도정자문단을 추가로 구성, 도정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도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발령을 통해 '미래 정책 구상을 위해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도정 자문기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민선 8기 혁신에서 성장으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미래기획단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9일 전북도의회 의사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인사청문회 실시 재개정 협약식이 열렸다.

도덕성 검증 중 갑질·4대 폭력 관련 사항 공개 합의

도-도의회, 인사 청문 재개정 협약 체결

위원회 의결 등 있을 시 청문 대상자에 인사청문회 협약 규정 내용 관련 추가자료 제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9일 도의회 의사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실시 재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재개정 협약을 통해 그동안 비공개로 했던 도덕성 검증 중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 협약을 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자료제출 요구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문이 밀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부의장은 "재개정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에서 사전검증과정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기 부의장도 "인사청문제도 재개정 협약이 보다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보완과 자리매김을 위해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이뤄진만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정 촉구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청문회제도

공급적으로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앉혀 전북발전을 견인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도와 의회가 공감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제도의 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주영은 의장과 이정린·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김인원 의회사무처장, 김관영 지사와 조봉암 행정부지사,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의회와 전북도는 2019년 인사청문회도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대상 기관을 확대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민주도당,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남원 전통시장서 상인회와 간담회·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9일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남원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명절 장보기와 소상공인·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민생 탐방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을 비롯해 박희승 남원·임실 시·도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남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장보기 캠페인 진행했다.

이후 상인회 간담회와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복지정책에 대한 민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병도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에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드리며 더불어민주당도 민생회복을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 위원장과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시·도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은 19일 남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장보기 캠페인 진행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기부문화 확산... 전주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주시의회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기부문화를 확산에 동참했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의사실에서 이기동 의장, 권영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산·덕진지구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의장은 전달식에서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헌신적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사의 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전주시에 나눔과 봉사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적십자 특별회원증을 전



달하며 "적십자 특별회비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전주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십자사는 도움의 손길 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